그랜드 부다 페스트를 보고.(수정)

“예쁘다”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자주 드는 생각이 아닐까 싶다. 특히, 처음 작가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소개할 때 보여주는 전체적으로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과 호텔 뒤에 있는 산과 앞에 있는 리프트까지도 분홍색으로 보이는 장면은 이 영화를 대변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를 꾸미는 어두우면서도 따뜻한 색감과, 배경을 중심으로 인물을 찍는 기법은 단지 내용을 보지 않고서도 영화를 특별하게 만든다. 영화 중간에 악당이 고양이를 창밖에 던져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죽어 있는 고양이와 악당이 변호사를 죽일 때 문에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 등 잔인할 수도 있는 장면이 몇몇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 장면 마저도 한 편의 그림 작품처럼 느껴지게 한다.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은 본 사건이 캡슐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캡슐화는 컴퓨터 공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재료들을 하나로 묶어 캡슐에 넣어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첫 장면은 작가의 묘비에서 그 작가의 책을 읽는 소녀가 나옴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소녀를 통해 다음 캡슐을 열어간다. 그 캡슐안에는 작가가 있다. 작가는 젊었을 때 그랜드 부다 페스트 호텔의 주인인 제로를 만나면서 또 캡슐을 열어 간다. 그 캡슐안에서 무슈 구스타브라는 호텔 컨시어를 통해 드디어 사건이 시작된다. 자칫하면 영화가 복잡해지고 어지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캡슐을 한 내레이션으로 진행함으로써 몰입도는 크게 방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캡슐화를 함으로서 중심 내용이 정성스럽게 보호되고 있고 다른 잡다한 배경에 의해 방해되지 않고 오로지 보호되고 있는 느낌도 준다. 마치 한 팀의 에이스한테 다른 주위의 것은 팀이 해 놨으니 중요한 일은 에이스인 너가 해주면 돼! 라는 느낌이랄까?

소재도 굉장히 독특하다. 호텔이라는 장소와 그곳에서 일하는 호텔 지배인 이라고도 할 수 있는 컨시어라는 생소한 직업. 이 영화는 그들의 세계를 아주 세련되고 멋지게 표현한다. 중간에 그랜드 부다 페스트 호텔의 컨시어인 무슈 구스타브가 감옥에서 탈옥하여 다른 호텔의 컨시어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때 각 호텔의 컨시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각 호텔마다의 특징과 분위기를 다양한 색깔로 각 컨시어에게 입힘으로써 그들의 멋을 보여준다.

또한 영화 캐릭터 하나하나가 매력적이다. 특히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무슈 구스타브는 허영심에 가득차고 냉철해 보이는 칼 같은 첫인상을 가졌지만, 사건의 전개될수록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호감을 이끌어낸다. 식사 전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들에게 시를 읽어준다 던지, 많은 미사여구를 붙이면서 말을 이어 나가는 모습에 우리는 그를 재수없는 인간쯤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면서 보여지는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죄수복을 너무나도 잘 소화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 우리는 인간미를 듬뿍 느끼며 어느새 그에게 빠져 버리게 된다.

모든 회상이 끝나고 제로는 작가에게 무슈 구스타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솔직히 말해서 그의 세상은 이미 그가 나타나기도 훨씬 전에 사라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난 이렇게 말하고 싶군, 그는 확실히 아주 멋진 품위를 가지고 그 환상 속에서 살았었다고.” 무슈 구스타브는 시도 낭송하고 낭만적이고 품위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시대에 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살아남고 돈을 버버는 것 중요하다. 그런 그에게 격식있고 낭만있어 보이게 하는 곳은 호텔이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발휘하며 인정받고 또 만족하며 살았다. 심지어 감옥과 같은 곳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허영심 있는 자기의 모습을 고집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소용없는 일로 보이지만 어쩌면 삭막한 현시대에 자신에게 가장 멋진 삶을 사는게 아닐까?